

아쓰미 재단의 「국사들의 대화」가 제 3 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포럼 관계자들은 아시아미래회의에 이 기획을 채용해주신 아쓰미 재단과 따뜻한 지원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와세다대학 동아시아 국제관계연구소, 그리고 도쿄클럽(東京俱樂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1 회 포럼은 일본 기타규슈에서 열렸습니다. 동아시아의 한국·중국·일본이 역사에 관한 대화를 할 때, 각자가 어떤 습관과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특히 자국사를 떠올릴 때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앞으로의 대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제 2 회 이후에는 역사인식을 다룰 때 반드시 필요한 동아시아 역사 속의 여러 사건, 그 중에서도 관계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벌어진 대규모 충돌을 주제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정반대의 사태를 검토하고 비교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같은 장소인 기타규슈에서 열린 제 2 회 대회의 주제는 「몽고내습과 13 세기 몽고제국의 글로벌화」였습니다. 한국·중국·일본뿐만 아니라 몽골공화국과 중국의 내몽고에서도 연구자를 초빙하여, 인류 역사상의 대사건이었던 몽골의 유라시아 석권이, 동아시아에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원나라를 몽골제국사의 일부로 다루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중국사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점을 둘러싼 토론이 이루어졌고, 「국사」에서조차 결코 일국사의 틀 속에서는 모든 것을 다룰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몽골의 정복에 동반하여 대규모의 문화혼종이 발생하여, 조선·중국의 사회에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남겼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 3 회 회의에서는 「17 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전란에서 안정으로」라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6 세기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두 차례 조선을 침공하였고, 조선·명 연합군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그 후 이번에는 만주족 홍타이지가 두 차례 조선을 공격하였고, 종속관계를 맺게 됩니다. 나아가 중국 본토까지 침공하였고 청조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7 세기 한반도를 둘러싸고 발생한 동아시아의 대란, 즉 일본과 신라·당 연합군의 전투와 한반도 통일, 그리고 13 세기 몽고의 침략에 이어지는 세 번째 동아시아 대란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대란을 왜란과 호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국의 연구자들은 두 전쟁을 별개로 논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왜란과 호란을 동시에 포착하면 무엇이 보일 것인가, 이것이 이번 회의의 첫 번째 문제제기입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세계로부터 대량의 은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먼저 멕시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은을 수입했습니다. 명은 조선에서 제련기술을 받아들여 은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일본에서 많은 은을 수입하여 장성 건설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는 권역 내 각 국의 경제관계를 긴밀화하고 각 국에 번영을 가지고 오기도 했으나, 한편으로 일본이나 만주족에 군사패권 추구라는 야망을 생겨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의 번영과 대전쟁의 동시진행, 이것이 17 세기의 동아시아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 동아시아 대란에 관하여, 우선 종래의 연구를 기반으로 왜란과 호란이 조선 사회에 가지고 온 타격과 상처를 확인하는 한편, 이러한 심각한 대란이 어떻게 종식으로 이어졌는지, 또한 관계 각 국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남겼는지 밝히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을 보시고 예상하셨듯이, 각 국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상당히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국사에서 이 국제 문제를 다루어야만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차이는 관심사를 가진 역사가 사이에서 어떤 대화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번 포럼의 과제입니다.

「국사들의 대화」는 참가자 사이의 역사인식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국에서 교육하고 있는 公定의 역사는 물론, 개개인이 가진 역사상 사이에는, 주안점에서 해석에서도 큰 차이와 대립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포럼은 다만 대립만이 주목받는 「국사들」 사이에서 대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발표자분들께서는 자신의 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발표에도 귀를 기울인다면, 거기에서 새로운 지견을 발견하고 나아가 학문적 친구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는 발표자 외에도 「국사」 전문가를 초대하였습니다. 이 분들께서는 부디 각 세션의 질문시간에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주시고,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관심을 공유할 수 있는 동료들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3 개 국 연구자들의 모임이므로, 언어상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아쓰미 재단 멤버들이 도와줄 것이므로 편히 부탁드립니다.

제 3 회 「국사들이 대화」가 국경을 넘은 역사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동아시아에 지식의 케미스트리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참가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